

# 러시아어 ‘격 어미’와 한국어 ‘격조사’의 비교 및 분석\*

– 번역을 위한 활용방안으로서의 탐구를 중심으로

김 성 완  
(선문대학교)

## 국문초록

이 글의 목표는 한국어의 조사 중에서 ‘격조사’로 분류되는 것들이 러시아어의 ‘격 어미’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러시아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격조사의 생략현상은 격 어미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격조사가 러시아어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고찰해 본다.

러시아어의 ‘격’이란 개념을 한국어에서 격조사로 표현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갖는다. 우선 격조사는 격 어미와 형태론적으로 그 범주가 다르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명사구의 문법적 관계 혹은 문장 성분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파악이 조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러시아어에서는 격 어미에 의해서 문법적 관계가 나타난다. 그리고 격조사는 구조적으로 할당된 격 표지가 아니지만 격 어미는 할당된 격 표지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국어 격조사에 대응하는 러시아어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문법성이 강한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는 주로 러시아어의 격 어미에 대응하지만, 문법성이 약한 부사격조사는 전치사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론적

---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 후 연수과정 지원(KRF - A00078)에 의해 수행되었음.

으로 말해서 한국어의 격조사와 러시아어의 격 어미는 같은 층위에서 대응할 수 없다.

---

주제어

격, 조사, 격조사, 격 어미, 굴절, 형태론, 번역, 문법성

### 1. 서론

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 명사(구)가 문장성분으로 쓰이면 이 명사(구)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문장 내의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관계를 실현하는 것이 한국어의 ‘조사’이며, 러시아어의 ‘격 어미’이다.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조사와 격 어미는 비슷한 용도로 쓰이지만 조사는 격 어미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어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격’이란 격 체계가 있는 언어에서 명사류의 어형 변화 형태를 문법적으로 지칭한 것이고, 이러한 언어에서 격의 수는 어형 변화의 수와 일치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명사류가 어형 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격이란 문법범주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어형 변화를 통해 기술할 수 없으며, 만약에 조사를 어형 변화에 상응하는 문법범주로 인정한다고 해도 조사의 수가 너무 많다<sup>1)</sup>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어의 조사 분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이분법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격조사’<sup>2)</sup>와 ‘보조사’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또한 격조사가 격의 기능을 하지 않고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찾아 그 의미기능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노력<sup>3)</sup>도 많이 있었

---

1) 표제어의 수가 모두 5만인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197개의 조사를 표제어로 제시하고 있다.  
2) 필자는 ‘격조사’라는 용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한국어 조사 연구에서 ‘격’이라는 용어가 폭넓게 사용되며, 이 글이 격 체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어와의 비교이므로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3) 신창순(1975), 임홍빈(1979) 등은 격조사의 의미기능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기존의 격조사 기능 이외에 이들이 보조사로써도 기능한다고 보았다. 주격조사 ‘이/가’는

다. 한국어 조사에 대한 분류는 이제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조사 분류의 전체 체계에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될 격조사에 대한 견해도 뚜렷한 기준이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격조사는 문장에서 문법적 의미를 가지며, 보조사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모든 조사는 문법적 의미와 어휘적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언어 현상을 양분법적 방법론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며, 정도의 차이로 연결된 연속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조사가 가지는 문법적인 성격과 어휘적인 성격을 정도성으로 파악해야만 조사, 특히 이 연구의 대상인 한국어의 격조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격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크게 형태를 중심으로 한 격 설정<sup>4)</sup>, 서술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격 설정<sup>5)</sup>, 의미를 중심으로 한 격 설정<sup>6)</sup>, 변형생성문법의 관점에 의한 격 설정<sup>7)</sup>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형태, 의미, 문장 성분들 간의 기능 중에서 무엇을 중심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형태', 즉 조사를 중심으로 격을 설정하면 조사의 수만큼 격을 설정하게 되고, 서술어를 중심으로 격을 설정하면 관형격이나 부사격은 격 유형에 포함할 수 없게 되며, 의미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관된 문법 기술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장의 성분을 중심으로 한국어의 격조사를 주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 서술격의 7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이 글의 목표는 첨가어인 한국어의 조사 중에서 격조사로 분류되는 것들이 굴절어인 러시아어의 격 어미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러시아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번역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지정', '배타', '선택', '대조' 등의 의미를 가지며, 목적격 조사 '을/를'은 '대상성'과 '전체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하였다.

4) 이희승(1949), 김민수(1984).

5) 권재일(1994).

6) 성광수(1977), 신창순(1975).

7) 김귀화(1994), 이광호(1988).

## II. 본론

격조사는 보조사에 비해 격 어미와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이들이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격조사의 생략현상은 격 어미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히겠다. 이를 바탕으로 격조사는 러시아어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고찰해 본다.

### 1. 격조사와 격 어미

격조사와 격 어미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격이란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론적 범주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러시아어에서는 격 범주가 명사(류)의 어형 변화, 즉 격 어미에 적용되는 데에 반해, 한국어에서는 조사에 적용한다. 러시아어 명사의 어형 변화를 나타내는 격 어미를 한국어의 조사에 대응시킬 수 있다 해도, 이는 여전히 형태론적 범주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한국어 문법에서는 조사를 별개의 단어로 인정하고 있지만 러시아어에서는 격 어미가 단어의 일부이다. 그래서 러시아어 격 어미를 형태적 범주가 다른 한국어의 조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특정 문장 성분으로 쓰인 명사구에 조사가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조사가 쓰일 수도 있으며 그 조사의 앞뒤에 다른 조사가 덧붙을 수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어에서는 특정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 어미가 생략되거나, 다른 격 어미가 쓰여서 그러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하나의 격 어미 다음에 다른 격 어미가 덧붙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격조사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다음의 예8)를 보자.

- 8) 본 논문의 예에 등장하는 러시아어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번역한 것이 아니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는 러시아어로 “От младшего брата был получен звонок.”으로도, “Младший брат позвонил мне.”로도 번역이 가능하며, “이 책은 동물에 관련된 것이다.”는 “Эта книга связана с животными.”, “Эта книга о животных.”로 번역이 될 수 있다. 또한 “어머니는 아침마다 꽃에 물을 주었다.”는 “Мать каждое утро давала цветам воду”, “Мать каждое утро поливала цветы.”로 번역이 가능하다. 러시아어로의 번역에 대한 책임은 필자에게 있으나, 여기에 대한 논란은 본 논문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 (1) 가.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여자이다. Действующие лица **в этой книге** в основном женщины.  
 나. 이반-이 나타샤-<sup>9)</sup> 책(-을) 줬다. Иван дал Наташе книгу.  
 다. 영이는 요즘 누구를 만나? **С кем** Ёнхи встречаетс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라. 영이는 요즘 아무-(\*<sup>10)</sup>를, <sup>0)</sup>-나 만나.  
 Ёнх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стречается **хоть с кем**.  
 마. 철수는 뭐-를 잘 먹어? **Что** хорошо ест Чёльсу?  
 바. 철수는 아무것-(\*을, <sup>0)</sup>-이나 잘 먹는다. Чёльсу ест **всё**(что папало).  
 사. (못 보던 옷을 보고) 너 새 옷- (#을, <sup>0)</sup> 샀구나. Да ты купила **новую одежду**.  
 아. (전화 통화에서) 내가 지금 너- (#를, <sup>0)</sup> 보러 갈게. Я сей час **к тебе** подъеду.  
 자. **깜깜한 하늘을** 비행기가 날고 있다. Самолёт летел **в тёмном небе**.

(1가)에서 보듯이 격조사는 단어가 아니라 구와 결합하고 있는데, 격 어미는 명사의 어형 변화로만 실현된다. 즉 격조사와 격 어미는 결합하는 단위가 다르다. 구나 절과 결합하는 격 조사는 러시아어에서 구나 절과 결합하여 그것의 통사의 미적 기능을 나타내는 범주인 전치사에 대응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격조사를 격 어미와 같은 층위에서 대응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1가)의 러시아어 번역문에서도 격조사 '에'는 전치사 구로 표현이 된다.

(1나)의 문장은 “이반-이 나타샤-를 책-을 줬다.”와 “이반-이 나타샤-에게 책-을 줬다.”의 두 문장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는 문법적 관계가 격조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미적이거나 화용적인 것에 의해서 파악됨을 보여 주며, 한국어에서 명

않는다고 판단한다.

- 9) 본 논문에서는 격조사가 생략되었음을 나타낼 때에 ‘<sup>0)</sup>’표지를 넣는다.  
 10) 본 연구에서는 문법적으로 비문인 문장은 ‘\*’로 표시하고, 의미적이거나 화용론적으로 비문인 문장은 ‘#’를 사용한다.

사구의 문법적 관계 혹은 문장 성분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파악이 조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어 문장 “Иван дал Наташе(여격, ~에게) книгу(대격, ~를).”에서는 격 어미에 의해서 문법적 관계가 나타난다.

(1라바)는 (1다마)에 대한 답인데, 격조사 ‘-를’은 목적어로 쓰인 부정 대명사 ‘아무’나 ‘아무것’에 결합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조사 ‘-를’이 구조적으로 할당된 목적격을 나타내는 의미가 없는 ‘목적격 표지’가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가진 조사이며, 그 의미가 ‘아무’의 의미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어에서는 격 어미가 특정한 단어와 결합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

(1사아)에서는 화자가 언급하는 대상이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 ‘-를’이 쓰이지 않는데, 러시아어에서는 발화의 상황에 따라 격 어미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1자)에서는 조사 ‘-를’이 명사구로 하여금 목적어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격조사라면 문장 성분이 반드시 목적어로 파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이는 조사 ‘-를’을 문장 성분의 문법적 기능을 부여하는 격조사로 파악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제 격조사의 생략과 실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는 한국어의 격조사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문장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 2. 조사의 생략<sup>11)</sup>과 실현

국어의 생략현상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 주로 어휘적 성분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지금은 격조사와 같은 문법적 성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1) 격조사의 생략과 실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연구가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방법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용어인 ‘생략’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현행 학교문법에서도 역시 격조사 생략이라 하여 국어의 특수한 현상으로 기술되고 있다.

한국어의 발화에서는 주격이나 목적격조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격조사들도 일반적으로 생략<sup>12)</sup>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실에서 생략된 조사가 실현이 되었을 때에는 그 조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주격조사 '이/가'는 주격의 기능을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주격조사가 문법적인 의미 외에 다른 기능도 한다는 견해를 수용하여, 한국어의 격조사보다 의미 기능이 약한 러시아어 격 어미<sup>13)</sup>와의 상호 번역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다.

다음의 예<sup>14)</sup>는 격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들이다. 러시아어에서 격어미를 생략하는 것은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일으키지만 한국어에서 격조사의 생략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 
- 12) 일반적으로 문법성이 강한 정도, 즉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위치격, 방편격, 비교격)의 순으로 생략이 더 용이하다고 본다.
- 13) 격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 인도유럽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며, 격이 갖는 형태적 특성에 의거하여 각 격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뽀제브나(A.A. Потенбя, 1958)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 의미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샤흐마토프(A.A. Шахматов, 1925)는 격이 명사와 동사의 어디에 결합하는지에 따라 구분을 하고, 이들의 기본 의미를 기술하였고, 뻬쉬콥스키(A.M. Пешковский, 1956)는 격이 나타나는 구조를 고려하여 격 의미를 기술해야 한다고 하였다. 비노그라도프(B.B. Виноградов, 1972)는 격의 용법은 문법적 관계를 통사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격 의미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격을 통사적 범주가 아닌 형태적 범주로 보고 각 격의 보편적 의미를 밝히려는 형태론적 관점(P. O. Якобсон, 1971)과 문맥을 중심으로 격을 설명하는 통사론적 관점(E. Курилович, 1962)으로 나뉜다. 형태적으로 러시아어의 격은 전치사의 유무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 잘리즈냐(A.A. Зализняк, 1973)은 협의의 형태적 격은 단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어형만을 격 형태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최근의 격에 대한 주요 흐름은 야콥손과 촘스키의 지배-결속 이론을 축으로 하는데, 촘스키 중심의 통사 의미론적 관점에서는, 명사구에 대해 격을 할당할 때 배치된 문맥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 이론은 엄격한 통사적 구조에 의해 격이 결정되며, 격은 문장의 의미 해석에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큰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어에서 격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연구가 되고 있고 격이 문장 내에서 통사적 기능에 따라 주체, 객체, 상황, 한정어 개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어 격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한국어 조사의 의미 연구와 다르다.
- 14) 격조사의 생략이 문장의 리듬(호흡)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익섭·임홍빈(1983)에서 지적된 바가 있으며, 체언 뒤에 휴지(休止, pause)가 놓이게 되면 문장의 리듬이 달라져서,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것이다.

- (2) 가. 저 사람-Ø 무슨 책-Ø 읽고 있니? Какую книгу читает тот человек?  
 나. 까짜-Ø 책-Ø 여기-Ø 있어. Катина книга тут(здесь).  
 다. 물이 얼음-Ø 돼. Вода превратится в лёд.  
 라. 혼자-Ø 무엇-Ø 해? Что ты одна делаешь?  
 마. 나타샤-Ø 시골-Ø 살아. Наташа живёт в деревне.  
 바. 아진-Ø, 같이 가자. Аджин, пой дём вместе.  
 마. 엄마-Ø 유치원-Ø 가서 너-Ø 봤어. Мама видела тебя в садике.

위의 예에서처럼 한국어에서 체언은 격조사 없이도 다른 단어와 통합하여 문장의 완전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실제적인 담화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의 발화에서는 주격이나 목적격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격조사들도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어 문장에 격조사가 사용되면 그 격조사는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담화현장에서 주고받는 화자와 청자의 발화에서는 표면상에 격조사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어 문장의 격조사가 경우에 따라서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자의 의도에 따라 첨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격조사를 포함한 격조사는 일반적인 국어 문장의 어순에 합당하고, 국어 문장 성분들의 통합관계에서 그 격을 예측할 수 있을 경우에 격 기능을 한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그 격조사는 생략된다. 그리고 문장이 국어 어순에 맞지 않을 경우와 문장구조가 복잡하여 격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때에는 격조사가 실현<sup>15)</sup>되어 격 기능을 한다.

(2가)에서는 주격 ‘이’와 목적격 ‘을’, (2나)에서는 관형격 ‘의’, 주격 ‘이’, 부사격 ‘에’, (2다)에서는 보격 ‘이’, (2라)에서는 주격 ‘서’, 목적격 ‘을’, (2마)에서는 주격 ‘가’, 부사격 ‘에서’, (2바)에서는 호격조사 ‘아’가 생략되어 있다. 이들 격조사가 특정한 의미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라든가 목적어와 같은 통사적

15) 김일병(1993)은 국어의 주격조사 ‘가’가 문장에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주어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거나(‘얇은 책이’ 더 비싼 책이야), 또는 한정어(한국에서는 ‘쌀이’ 주산물이다)나 수식어(옛날 옛날 깊은 산속에 수돌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문장 성분들과 함께 주어가 놓이게 되면 거기에는 주격조사 ‘가’가 필수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인 특성을 표시해 주는 것이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것이다. 이때 번역상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격조사는 문법적 의미만을 가지며, 어휘적 의미는 내포하지 않는다. 위에서 인용되어진 예들은 격조사가 생략됨으로 인해 더욱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문장들<sup>16)</sup>이다.

격조사가 생략되지 않고 문장에서 실현된 예들을 검토해 보자.

(3) 가. **내가** 김치- $\emptyset$  먹었어. **Именно**<sup>17)</sup> я ел Кимчи.

나. 철수는 강아지-\* $\emptyset$ 를 제일/가장/더 좋아해. Чёлсу любит щенка больше всего.

다. 철수는 영이가 아니라 **순이-를** 좋아한다. Чёлсу нравится не Ёнхи, а **Суни**.

라. 철수는 남들이 따분해 하는 **국어학-을** 재미있어 한다.

Чёлсу любит **корееведение**, которое другим кажется скучным.

(3가)에서 주격조사 '-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는 배타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이 들어 있다. 먹은 행위보다는 행위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의 한국어 조사 '이/가'는 러시아어에서 어휘적 첨가나 의미 강세(смысловой ацент)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다. (3나)에서 '제일/가장'이나 '더'와 같이 다른 개체와의 비교를 함축하는 표현이 쓰일 경우에는 조사 '-를'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는 '-를'의 의미가 '대상 지정'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3다)에서의 목적격조사 '-를'은 '대조적 강조'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발화 상황에서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체(영이, 순이) 중에서 '순이'가 '대상'으로 '선택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3라)에서 '-을'은 관형절과 주절의 내용을 상반되게 함으로써 '대조적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16) 일반적으로 이러한 생략이나 실현이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면 격기능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문장에서는 구분 없이 쓰이고 있기도 하다.

17) 주격조사 '이/가'가 러시아어에서 실현될 때에 'именно' 등의 어휘로써 나타나기 보다는 의미강세, 억양, 어순으로 표현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어휘적인 면에서 접근할 것이다. 이러한 어휘적인 첨가가 실제 러시아어의 사용면에서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격조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방편임을 밝혀 둔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격조사 생략과 이의 실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개념을 가지고 한국어 격조사에 대응하는 러시아어 표현들을 살펴보자.

### 3. 한국어 격조사에 대응하는 러시아어 표현

#### 3. 1. 주격조사

- (4) 가. **날씨가** 추워요. **Погода** холодная. 너 **혼자서** 무엇을 하니?  
Что ты **одна** делаешь?  
나. **그녀가** 집에 없다. **Её** нет дома.  
**그가** 길에서 돈을 도둑맞았다. **У него** деньги дорогой украли.  
다. **나** 공부해야 해. **Мне** надо учиться. **그가** 춥다. **Ему** холодно. **나** 슬퍼. **Мне** грустно.  
**나** 할 일이 없어. **Мне** нечего делать.  
라. **새 도시가** 건설되었다. Новый город построили. **내가** 해고당했다. Опустили **меня**.  
마. **사전이** 사용되었다. **Словарём** пользовались.

주격조사 ‘이/가’를 표현하는 러시아어 격으로는 주격, 생격, 여격, 대격, 조격 등이 있다. 주격조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통상 명사의 기본형인 주격을 사용하며, 러시아어에서 명사의 주격은 주로 문장의 주어 기능을 수행한다. 주격조사 ‘서’는 수를 나타내는 명사가 주어가 될 때에 쓰이며, 그 수를 강조한다. 이 경우에는 주격조사 ‘서’ 없이도 그에 해당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러시아어로는 수사의 주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4가).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생격으로 문장의 주어를 표시하며, ‘у + 생격’구문으로 소유를 나타낼 수도 있다(4나). 요구, 필요, (불)가능을 의미하는 서술어가 쓰인 무인칭문인 경우, 사람의 나이나 기온을 나타내는 경우, 품질 형용사에서 만들어진 상황부사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 부정 부사가 쓰인 경우에 대명사의 여격이 주격조사의 역할을 한다(4다). 단, 일반명사의 여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어 수동문의 주격조사는 러시아어 부정인칭문(不定人稱文)에서 대격으로 쓰이며(4

라), 동사의 지배에 의해 조격도 쓰일 수 있다(4마).

### 3. 2. 목적격조사

목적격 조사 '-을/를'은 '대상성'과 '전체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그 외의 의미로도 자주 쓰인다. 여기에서는 주로 후자의 경우에 대한 예를 살펴보자.

- (5) 가. 강을 헤엄쳐 건넜다. **Переплыл реку.**  
우리는 **하룻밤을** 그 집에서 묵었다. Мы провели **одну ночь**  
в том доме.
- 나. **깜깜한 하늘을** 비행기가 날고 있다. Самолёт летел **в**  
**тёмном небе.**
- 다. 아침 일찍 **회사를** 나왔다. Рано утром пришёл **на фирму.**
- 라. 우리는 아침 아홉 시에 **서울을** 떠났다. Мы выехали **из**  
**Сеула** в девять часов утра.
- 마. 주말에 **낚시를** 갔다. В выходные поехали **на рыбалку.**

대상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대격(5가), 행동이 진행되는 장소(5나)는 이에 상응하는 러시아어 전치사 'в'를 포함한 전치사구, 목표 장소(5다)나 어떤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곳(5마)으로의 방향은 전치사 'на', 행동이 시작되는 곳(5라)은 전치사 'из'로 표현할 수 있다.

### 3. 3. 관형격조사

- (6) 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депутат **нашей страны**
- 나. **나의** 살던 고향 родина, где я жил
- 다. **자연의** 관찰 наблюдения **над природой**
- 라. **최악의** 경우 худший случай, **강철의** 의지 железная воля
- 마. **최고 간부의** 한 사람 один **из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лиц**
- 바. **서울의** 찬가 хвалебная песнь **Сеулу**
- 사. **조국 통일의** 염원 стремление **к объединению Родины**

관형격조사 ‘의’는 한국어에서 소유, 소속, 소재 관계(6가), 주어(6나), 목적어(6다), 속성 관계(6라), ‘~가운데서, 중에’(6마), ‘~에 대한’(6바), ‘~라는’(6사) 등으로 쓰이는데, 러시아어로는 생격(6가) 외에 주격(6나), 여격(6바), 형용사 주격 형태(6라), 전치사 ‘над’(6다), 전치사 ‘из, к’를 포함한 전치사구(6마사) 등으로 쓰일 수 있다.

### 3. 4. 보격조사

- (7) 가. 엄마가 **뚱보**가 되었다. Мама стала **толстуха**.
- 나. 그는 **외교관**이 되었다. Он стал **дипломатом**.
- 다. 물이 **얼음**이 된다. Вода превратится **в лёд**.

보격조사는 주격(7가), 조격(7나), 전치사 ‘в’(7다)가 될 수 있다. (7다)의 경우는 러시아어의 술어가 전치사 ‘в’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 3. 5.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 중에는 의미가 다양하게 분석되는 것들이 많다. 이 의미에 따라 러시아어로 번역을 할 때에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사격조사 ‘에’는 의미에 따라 분석을 하고, 나머지 부사격조사는 러시아어로 표현된 결과에 따라 분류를 하겠다.

#### 3. 5. 1. 부사격조사 ‘에’

##### 3. 5. 1. 1. 장소, 자리

- (8) 가. 나따샤는 **병원**에 있다. Наташа **в больнице**.
-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여자이다.
- Действующие лица **в этой книге** в основном женщины.
- 나. 조금 있으면 **런던**에 도착합니다. Скоро прибываем **в Лондон**.
- 누나는 **회사**에 다닙니다. Сестра ходит **на фирму**.

**문에** 붙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Нашёл записку,  
 прикреплённую **на дверь**.  
 흙이 **바지에** 묻었다. Глина прилипла **на брюки**.  
**이 통에** 기름을 가득 넣어 주세요. **В этот бак** залей те масло  
 до краёв.  
 나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 가게로 달려갔다.  
 Я положил деньги **в карман** и побежал в магазин.

사람이나 사물이 차지하고 있는 장소를 나타내거나, 출현 또는 출전 장소를 나타내는 ‘-에’는 러시아어의 전치사 ‘в’(8가), 행동의 목표가 되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로 이동하여’, 닿는 데나 물건 따위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쓰이어 ‘~과 마주 닿아’, 행동의 영향을 받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쓰이어 ‘~를 대상으로 하여’의 뜻을 가지는 경우에는 대격 지배 전치사(구)가 쓰인다(8나).

3. 5. 1. 2. 대상

- (9) 가. 어머니는 아침마다 **꽃에** 물을 주었다. Мать каждое утро давала **цветам** воду.  
 나. 나는 그 남자 가수의 **노래에** 매혹되었다. Я очарован **песней** того певца.  
 그 사람은 **경찰에** 쫓기고 있다. Тот человек разыскивается **полицией**.  
 철수는 **독감에** 걸렸다. Чольсу заболел **гриппом**.  
 다. 그는 **슬픔에** 잠겨 울고 있었다. Он **от горя** плакал.  
 철수는 **기쁨에** 넘쳐서 소리를 질렀다. Чольсу **от радости** закричал.  
 라. 고래는 **포유동물에** 속한다. Кит относится **к млекопитающим**.  
 언어학도 **인문과학에** 포함된다. Языкознание тоже относится **к гуманитарным наукам**.  
 마. 그 사람은 **도박에** 미쳐서 가정도 돌보지 않았다.

Тот человек помешался **на азартных играх** и даже не заботился о семье.

대상을 나타내는 ‘-에’는 러시아어의 여격(9가), 조격(9나), 생격 지배 전치사(9다), 여격 지배 전치사(구)(9라), 전치사 ‘на’를 포함한 전치사구(9마)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 3. 5. 1. 3. 기타

(10) 가. 그 학생의 답안은 **완벽에** 가까웠다.

Экзаменационная работа того ученика была близка **к совершенству**.

나. 그는 **대통령에** 임명되었다. Он был назначен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그녀는 문과대학 **학장에** 취임하였다.

Она была назначена **на место декана** факультета гуманитарных наук.

다. 나는 소주 **한 잔에** 취해 버렸다. Я опьянел **от одного стакана** сочжу.

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Я дрожал **от страха**.

라. 철수는 적군의 **총에** 죽었다. Чольсу умер **от пули** врага.

영수는 연필을 깎다가 **칼에** 손가락을 베었다.

Ёнсу точила карандаш и порезала палец **ножом**.

젖은 옷을 **난로에** 말렸다. Мокрую одежду высушили **на печке**.

마. **한 시에** 만나자. Встретимся **в час**.

그 일을 **한 시간에** 다 끝내라. Закончь эту работу **за час**.

바. 막내는 **다섯 아이 중에** 유달리 약한 아이였다.

Младший был самым слабым **среди пятерых детей**.

**러시아 속담에** 불행은 혼자서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В русской пословице** говорится, что беда не

приходит одна.

기자의 질문에 나는 솔직히 답변을 하였다. Я честно отвечал

на вопросы журналиста.

사. 이 옷을 이천 루블에 샀다. Эту одежду купил за две тысячи рублей .

첫 번째에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Давай подумаем, что нужно сдела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격조사 '-에'는 장소나 대상을 나타내는 것 외에 기준(10가), 자격(10나), 원인, 이유(10다), 도구나 수단(10라), 시간(10마), 상황이나 출전(10바), 단위(10사) 등의 뜻으로 쓰이는데, 이는 러시아어로 생격 지배 전치사(10다라바), 여격 지배 전치사(10가), 대격 지배 전치사(10나마바사), 조격(10라), 전치격(10라바) 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 3. 5. 2. 러시아어의 생격으로 실현되는 부사격조사

(11) 가. 그 여자는 표준에서 훨씬 밑도는 작다란 체구였다.

Та женщина была маленького телосложения, намного меньше среднего.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 Женщина живёт дольше мужчины.

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Я чувств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главы семьи.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Должны исполнить обязанности родителей .

비교의 기준점이 되는 '-에서'와 '-에 비해서'는 러시아어에서 비교의 생격으로 표현이 된다(11가). 자격을 나타내는 '-로서', '-으로서'도 생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 3. 5. 3. 러시아어의 여격으로 실현되는 부사격조사

- (12) 책을 **동생에게** 주었다. Дал книгу **младшему брату**.  
그 소식을 **내게** 알려 주렴. Сообщи эту новость **мне**.  
**누군가에게다** 편지를 쓰고 싶다. Хочется **кому-нибудь**  
написать письмо.  
**나랑** 잘 어울리는 남자 친구. Подходящий **мне** друг.  
**너와** 어울리는 색을 골라 봐. (기준으로 삼는 대상) Выбери цвет  
идуший **тебе**.  
**나보고** 같이 가자고? Ты предлагаешь **мне** идти вместе с  
тобой ?  
이 일이 **저한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Не знаю, подходит ли  
**мне** эта работа.  
판야는 **나더러** 같이 가자고 한다. Таня предлагает **мне** пой ти  
вместе.

부사격조사 ‘~에게/게/에게다/랑/와/보고/한테/더러’는 의미적으로 ‘~를 상대로 하여’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에 러시아어에서 여격(~에게)으로 표현이 된다.

### 3. 5. 4. 러시아어의 대격으로 실현되는 부사격조사

- (13)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신다. Учитель заставлял  
**учеников** читать книги.  
**나타샤한테** 사 오게 시키자. Давай попросим **Наташу** купить  
это.  
전 **스테이크로** 하겠어요. Я выбираю стейк.

‘~로 하여금’, ‘~가 ~하도록’의 뜻을 가지는 ‘~에게’, ‘~한테’는 러시아어로 번역이 될 때에 ‘заставить(강요하다, 부득이 ~을 하게 하다)’와 ‘просить(요청하다)’동사를, ‘선택’의 의미를 가지는 ‘~로’는 ‘выбрать(선택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동사들이 목적격을 요구한다.

3. 5. 5. 러시아어의 조격으로 실현되는 부사격조사

- (14) 김 씨는 다행히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견되었다. К счастью, Ким был найден прохожим.
- 나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Я родился **сыном** крестьянина.
- 국민은 **투표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시한다. Гражданин выражает своё мнение **голосованием**.
- 닭이 **개한테** 물리었다. Курица укутана **собакой**.
- 문을 **열쇠로** 잠갔다. Закрыл дверь **ключом**.

‘~에게/한테(~에 의해)’, ‘~로(자격, 신분, 명성)’, ‘~로써(~를 가지고, ~에 의하여)’, ‘~로(도구, 수단)’는 이 의미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조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3. 5. 6. 러시아어의 전치사에 대응하는 부사격조사

3. 5. 6. 1. 생격을 지배하는 전치사

- (15) 가. **하늘에서** 눈이 내렸다. **С неба** падал снег.
- 이 책에서** 얻은 교훈이 뭐냐? Какой урок ты получил **из этой книги**?
- 아우의 불행은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Злосчастье младшего началось именно **с этого**.
-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 Прочитал от начала **до конца**.
- 나. **남편에게** 문제가 생겨 변호사를 찾아갔다. Я пошла к адвокату, так как **у мужа** возникла проблема. (사이에, 안에)
- 나한테** 극장 전화번호 있어. **У меня** есть телефон театра.
- 다. 숙제를 안 했다고 **선생님에게** 핀잔을 맞았다. (~로부터) Я получил **от учителя** нагоняй, за то что не

выполнил домашней работы.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От** младшего брата был получен звонок.

**대전서부터** 호남선과 경부선은 갈라진다.

**От Тэчжона** линии Хонам и Гёнбу расходятся.

**진수한테** 쫓기다가 넘어졌어. Я убегал **от Динсу** и упал.

라. **홍수로** 미국에서 9명이 죽었다. **Из-за наводнений** в Америке погибло 9 человек.

할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다. Дедушка умер от рака.

부부싸움은 늘 하찮은 **일로** 생긴다.

Спор между супругами возникает всегда **из-за пустяка**.

마. 친구가 **날더러** 심각하게 묻더군요. Друг спросил **у меня** серьёзно.

옛날의 한강 모습은 **오늘날과** 매우 다르다. (비교의 대상)

Бывший вид реки Хан во многом отличается **от сегодняшнего**.

바. 떡은 **쌀로** 만든다. Рисовая тток готовится **из риса**. 재료, 원료

‘~에서(출발점, 기준점)/에서부터(범위나 시간의 시작)’는 이 의미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전치사 ‘с, из, до’(15가), ‘~에게(안에, 사이에)’, ‘~한테(소유)’는 ‘у’(15나), ‘~에게/에게서/서부터/한테(~로 부터)’는 ‘от’(15다), ‘~로/으로(원인)’은 ‘из-за, от’(15라), ‘~더러/과’는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어의 동사가 요구하는 ‘у, от’(15마), ‘~로(재료, 원료)’는 러시아어 전치사 ‘из’로 번역이 가능하다.

### 3. 5. 6. 2. 여격을 지배하는 전치사

(16) 가. 대성이는 **문쪽으로** 걸어갔다. Дэсон пошёл **к двери**.

나. **이 길로** 가야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어. Идя **по этой дороге** можно быстрее добраться

다. **아침저녁으로** 벌써 쌀쌀해졌다. Уже холодно **по утрам и вечерам**.

‘~으로(방향, 지향점)’를 러시아어로 번역 할 시에는 부사격조사의 의미보다 러시아어의 명사 ‘дверь’가 요구하는 전치사 ‘к’(16가)가 대응하며, ‘~로’는 ‘행동의 경로’, ‘~으로’는 ‘~마다’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상응하는 전치사 ‘по’(16나다)로 번역이 된다.

3. 5. 6. 3. 대격을 지배하는 전치사

(17) 가. 비둘기는 **산으로** 날아갔습니다. Голубь улетел **в горы**.

우리는 **학교로** 갔다. Мы пошли **в школу**.

나. **나보고** 욕하지 마세요. Не ругай тесь **на меня**.

물이 **수증기로** 변한다. Вода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пар**.

네 딸이 **너랑** 많이 닮았어. Твоя дочь очень похожа **на тебя**.

‘~으로/로’는 ‘방향’을 나타내는데, 이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전치사 ‘в’로 해석이 된다(17가). ‘~보고/로/랑’은 자신이 가지는 의미에 대응하는 전치사로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번역된 러시아어의 술어가 요구하는 전치사 ‘в, на’를 가진다(17나).

3. 5. 6. 4. 조격을 지배하는 전치사

(18) **엄마랑** 음식을 만들었어요. Я приготовил еду вместе **с мамой**.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Я живу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저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행복한 편이다.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человеком**, я счастливый.

그는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한다. Он всегда встречает людей **с улыбкой на лице**.

러시아어 전치사 ‘с’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랑/과(~함께)’, ‘~로(상태)’, ‘~에게(~과)’에 대응할 수 있다.

3. 5. 6. 5. 전치격을 지배하는 전치사

- (19) 가. 영희는 공장에서 일한다. Ёнхи работает на заводе.  
숨 막힐 듯한 분위기에서 회의는 몇 시간째 계속되었다. (추상적 장소나 공간)  
В удружающей обстановке собрание продолжалось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подряд.  
우리는 며칠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확실히 보았습니다.  
Мы видели точно в визите президентом Америки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올해로 고생은 끝이다. В этом году конец трудностям.  
누나는 잠옷 바람으로 누워 있었다. Сестре лежит в пижаме.  
나.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 Я разочаровался в себе.  
진수는 영화배우랑 결혼한대. Говорят, Динсу женится на киноактрисе.

‘추상적 장소나 공간’의 의미를 가지는 ‘~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러시아어 전치사 ‘на, в’가 사용되었고, ‘~로(시간)’와 ‘~으로(옷 등을 걸친 상태)’는 이에 상응하는 ‘в’가 사용되었다(19가). (19나)의 경우는 러시아어로 번역 시에 술어가 요구하는 전치사가 ‘в, на’이다.

3. 5. 6. 6. 러시아어에서 어휘로 나타나는 부사격조사

- (20) 잡초는 무서운 가뭄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Сорная трава не умерла и выжила даже в страшную засуху. ~일지라도  
그림에서처럼 표현해 보시오. Попробуй те сделать также как на рисунке.  
때려도 바보마냥 웃고만 있었다. Его бьют, а он смеялся как дурак.  
트럭은 공룡만큼 거대해 보였다. Грузовик казался огромным, как динозавр.

러시아어 품사 중에서 자립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는 경우는 없었으나, (20)에서 보듯이 ‘~에도(~일지라도)’는 이 뜻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소사 ‘да же’로, ‘~에서처럼/마냥/만큼(~처럼 같은 정도로)’은 이에 해당하는 접속사 ‘как’ 등의 보조어로 번역이 될 수 있다.

3. 6. 호격조사

(21) 하늘에 계신 **주 예수그리스도시여**.

Господь Иисус Христос, пребывающий на небесах.

**대성안**, 같이 가자. **Дэсон**, пой дём вместе.

나의 사랑 **한반도야**.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оя любовь!

**그대여**, 부디 나를 용서해 주오. **Дорогая**, прости меня,

пожалуй ста!

호격조사 ‘(이)시여’, ‘아’, ‘야’, ‘(이)여’는 러시아어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

3. 7. 서술격조사 ‘이다’

(22) 가. 이게 내 **사진이야**. Это моя **фотография**.

1킬로그램에 **5천원이에요**. Один килограмм - **5 тысяч вон**.

나. 젊은 세대는 **감각적이다**.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обладает вкусом**.

할머니는 괜한 **걱정이다**. Бабушка зря **переживает**.

요리솜씨가 **제법이에요**. Он **довольно хорошо** готовит.

(22가)에서처럼 ‘지정’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러시아어로 서술격 조사 ‘이다’는 생략이 된다. 하지만 (22나)에서처럼 특수한 용법으로 쓰이면 러시아어로 번역을 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접미사 ‘-적’이 붙은 명사에 붙어 주체의 특징을 나타내면 그 명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첨가해야 한다.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일부 명사에 붙어서 행동을 나타내는 용언처럼 쓰이면 ‘-하다’에 해당하는 어휘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부사 뒤에 붙어서 행동이나 상태의 양상을 나타

널 경우에는 이 부사에 해당하는 동사도 같이 표현이 된다.

### III. 결론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사의 어형 변화에 기반한 러시아어의 ‘격’이란 개념을 명사의 어형 변화가 없는 한국어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갖는다.

1. 한국어의 ‘격조사’는 러시아어의 ‘격 어미’와 형태론적으로 그 범주가 다르다.
2. 격조사와 격 어미는 결합하는 단위가 다르다. 구나 절과 결합하는 격 조사는 러시아어의 전치사 구에 대응한다.
3. 한국어에서는 명사구의 문법적 관계 혹은 문장 성분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파악이 조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러시아어에서는 격 어미에 의해서 문법적 관계가 나타난다.
4. 한국어에서 격조사는 구조적으로 할당된 격 표지가 아니지만 러시아어의 격 어미는 할당된 격 표지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국어의 ‘격조사’가 문장 성분의 문법적 기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격 체계가 있는 언어와의 비교 연구에서는 ‘격조사’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한국어 자체에 러시아어의 격 어미에 대응하는 문법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실체는 한국어의 격조사 생략 현상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는 있다. 격조사의 생략과 실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 체언은 격조사 없이도 다른 단어와 통합하여 문장의 완전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러시아어의 격 어미와 대응한다. 반면에 실제적인 담화 현장에서 격조사가 사용되면 그 격조사는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의 목표인 한국어 격조사에 대응하는 러시아어 표현들에 대한 분석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주격조사는 러시아어의 주격, 생격, 여격, 대격, 조격으로 표현된다.
2. 목적격조사는 러시아어의 대격과 전치사로 표현된다.

3. 관형격조사는 러시아어에서 주격, 생격, 여격, 형용사 주격 형태, 전치사로 표현된다.
  4. 보격조사는 러시아어의 주격, 조격, 전치사로 표현된다.
  5. 문법성이 약한 부사격조사는 모든 격과 모든 전치사, 그리고 어휘의 첨가(접속사, 조사)로 표현이 가능하다.
  6. 호격조사는 러시아어의 격 어미로 표현되지 않는다.
  7. 서술격조사는 '지정'의 의미로 쓰일 때는 러시아어로 표현이 되지 않지만 특수한 용법으로 쓰일 때에는 이 서술격조사에 선행한 명사나 부사의 의미를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어휘적 첨가를 요구한다.
- 문법성이 강한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는 주로 러시아어의 격 어미에 대응하지만, 문법성이 약한 부사격조사는 많은 예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치사에 대응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어의 격조사와 러시아어의 격 어미는 같은 층위에서 대응할 수 없다.

#### ❖ 참고 문헌

- 권재일, 『한국어 문법의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1994.
- 고석주, 『현대 한국어 조사의 연구 1 - '격개념'과 조사 '-가'와 '-를'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2004.
- 김귀화, 『국어의 격 연구』, 한국문화사, 1994.
- 김민수, 『국어문법론』, 일조각, 1984.
- 김일병, “격조사의 생략에 대한 연구”, 『인문학보 16』, 강릉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93.
- 김재욱, 『한국어 문법형태 연구』, 한국문화사, 2003.
- 김준기, “격조사의 의미에 대하여”, 『어문학 71』, 한국어문학회, 2000.
- 남윤진, 『현대 국어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태학사, 2000.
- 성광수, 『국어 조사에 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7.
- 성기철, “주격조사 '-가'의 의미”, 『선칭어문 22』,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국어교육과, 1994.

- 신창순, “국어 조사의 연구”, 국어국문학 제 67호, 1975.  
이광호, 『국어 격조사 ‘을/를’의 연구』, 탑출판사, 1988.  
이익섭·임홍빈, 『국어문법론』, 학연사, 1983.  
이희승, 『초급 국어 문법』, 박문출판사, 1949.  
이희자·이종희, 『한국어 학습용 어미, 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2001.  
임홍빈, “을/를 조사의 의미와 통사”, 『한국어논총 2』, 국민대학교, 1979.  
최재희,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2004.  
홍사만, 『국어 특수조사 신연구』, 역락, 2002.

- АН СССР, *Грамматика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М, 1970.  
Виноградов В.В., *Русский язык*, М, 1972.  
АН СССР,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М, 1990.  
Зализняк А.А. “О понимании термина <падеж> в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описаниях”, *Проблемы грамматического моделирования*, М, 1973.  
Клобуков Е.В. *Семантика падежных форм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литературном языке*, М, 1986.  
Курилович Е., “Проблема классификации падежей”, *Очерки по лингвистике. Сборник статей*, 1962.  
Пешковский А.М., *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М, 1956.  
Потебня А.А., *Из записок по русской грамматике*. М., 1958.  
Шахматов А.А., *Синтакси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Л, 1925.  
Якобсон Р.О., “К общему учению о падеже, общее значение русского падежа”, *Избранные работы*, М, 1985.

❖ ABSTRACT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case suffixes' in Russian  
and 'case particles' in Korean

Kim Sung Wan

The purposes of this thesis are to find how different those categorized as 'case particles' in Korean is from the case in 'case suffixes' in Russian and to analyze and systemize the way they are used in Russian. In order to do achieve the purposes, the researcher will analyze how the phenomenon of skipping case particles is related to case suffixes, based on which the researcher will examine the way case particles is used in Russian.

There are several fundamental problems when we express the concept of 'the case' in Russian as a case particle. First of all, the case particle belongs to a different category from case suffixes in a morphological way. Also, grammatical relationships in noun phrases or understanding of grammatical functions of sentence factors depends on many including particles in Korean but, a case suffix determines the grammatical relationship and case particle is not a structurally assigned case signal but the word of ending representing the case has an assigned case signal.

Based on these differences, the researcher has examined the Russian expression corresponding to the case particles in Korean in this thesis and grammatically strong subject particles and objective particles are corresponding to the case suffixes but grammatically weak adjective particles are corresponding to the prepositions. In conclusion, case particles in Korea and case suffixes in Russian are not corresponding each other on the same level.

---

**Key Words**

case, a postpositional word, case particles, case suffixes, inflection, morphology, translation, grammaticality

논문접수일: 2008. 4. 28.

심사완료일: 2008. 5. 26.

게재확정일: 2008. 6. 13.